

1. 다음 문장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문장들이다. 모호성의 이유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?

- ① 내가 지난번에 만난 친구의 동생이 오늘 결혼을 한다고 한다.
- ② 그 연속극은 가정에 충실한 주부와 남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.
- ③ 나는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뵈었다.
- ④ 아내는 남편보다 아들을 더 좋아했다.
- ⑤ 그 배는 보기가 아주 좋았다.

2. 다음 문장에 쓰인 수사법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?

우리 옹기는 양은 그릇에 먹살을 잡히고 플라스틱류에 따귀를 얻어맞았다.

- ① 그는 30년 동안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고서 붓을 들기 시작했다.
- ② 지금껏 역사를 굽어본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.
- ③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.
- ④ 보고 싶어요, 붉은 산이, 그리고 흰 옷이.
- 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.

3.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?

인간은 흔히 자기 뇌의 10%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. 또 사람들은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조차 자기 뇌의 15% 이상을 쓰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 말에 신빙성을 더한다.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로 추정된다. 그는 “보통 사람은 뇌의 10%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~20%를 사용한다.”라고 말한 바 있다.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한발 더 나아가 그 비율이 10%가 아니라 6%라고 수정했다.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 와서는 인간이 두뇌를 단지 1%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.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활용도가 단지 0.1%에 불과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됐다.

- ① 인간의 두뇌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.
- ② 어른들도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③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.
- ④ 인간의 두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.
- ⑤ 어린 시절부터 개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4.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는 것은?

- ① 올해 신입생 입학율이 저조하다.
- ② 네 기사가 어린이란에 실렸다.
- ③ 알고도 모르는 채하였다.
- ④ 남술의 처는 또 한번 웃기 잘하는 그의 입술을 방끗 벌리었다.
- ⑤ 겉질채 먹는 것이 몸에 좋다.

5. 다음 중 70세를 가리키는 말로 옳은 것은?

- ① 이순(耳順)
- ② 종심(從心)
- ③ 지천명(知天命)
- ④ 불혹(不惑)
- ⑤ 이립(而立)

6. 문장의 호응이 어색한 것은?

- ① 절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- ②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.
- ③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.
- ④ 그다지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
- ⑤ 오직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길 뿐입니다.

7. 국어의 어휘 의미 변화에 대한 다음의 진술 중 옳바르지 못한 것은?

- ① ‘다리(脚)’가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가리켰으나 현대에는 ‘책상’에도 쓰인다.
- ② ‘짐승’은 ‘衆生’에서 온 말로 생물 전체를 가리켰으나 지금은 사람을 제외한 동물을 가리킨다.
- ③ ‘사랑하다’는 ‘생각하다’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 의미가 없다.
- ④ ‘어여쁘다’는 ‘조그맣다’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‘아름답다’의 의미이다.
- ⑤ ‘어리다’는 ‘어리석다’의 뜻이었다가 지금은 ‘나이가 적다’의 의미로 쓰인다.

8. 다음 예문의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품사가 다른 하나는?

봄 · 여름 · 가을 · 겨울, 두루 사시(四時)를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. 그러나 그중에도 그 혜택을 가장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, 그중에도 그 혜택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봄, 봄 가운데도 만산(萬山)에 녹엽(綠葉)이 우거진 이때일 것이다.  
- 이양하, <신록예찬> 중에서

- ① 두루
- ② 가장
- ③ 풍성히
- ④ 아낌없이
- ⑤ 아름답게

9. 다음 예문 중 문장 구조가 다른 하나는?

- ① 철수는 그 예쁜 소녀가 자꾸 생각났다.
-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고대했다.
- ③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.
- ④ 돌이는 지금이 중요한 때임을 직감했다.
- ⑤ 철수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.

10. 다음 단어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외래어 표기의 원칙은?

쿵트, 더블, 게임, 피어로

-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받침으로 ‘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ㅅ, ㅇ’만을 쓴다.
- ③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음에 가깝도록 둘 이상의 기호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이미 굳어진 외래어도 발음에 가깝도록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원음에 더욱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 문자나 기호를 만들 수 있다.

11. 다음 문장들의 의미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순서대로 바르게 옮긴 것은?

그는 부정이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.  
그 집에 가면 부정을 탄다는 소문이 있다.  
답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 한다.  
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어서 혼란스럽다.

- ① 不淨 - 不正 - 不正 - 否定
- ② 不正 - 不淨 - 不定 - 否定
- ③ 不定 - 不淨 - 否定 - 不定
- ④ 不貞 - 否定 - 不淨 - 不定
- ⑤ 不貞 - 不定 - 否定 - 不淨

12. 다음 사자성어 중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?

- ① 桑麻之交      ② 刎頸之交      ③ 膠漆之交
- ④ 金蘭之交      ⑤ 水魚之交

13. 다음 중 창작군담소설(일명 영웅소설)의 특징이 아닌 것은?

- ① '영웅의 일생'이라는 전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.
- ② 대중소설적 성격이 강하다.
- ③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.
- ④ 시·공간적 배경은 16~17세기 조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.
- ⑤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다.

14. 1930년대 문단의 상황에 대한 다음 진술 중 잘못된 것은?

- ① 김동리, 김유정 등 동반자 작가들이 활동했다.
- ② 예술성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이 크게 유행했다.
- ③ 모더니즘 문학이 도입되고 다양한 기법이 실험되었다.
- ④ 전원파, 청록파, 생명파 등이 등장했다.
- ⑤ 일제의 탄압으로 카프(KAPF)가 해체되었다.

15. 다음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?

머언 산 청운사(靑雲寺)/ 낡은 기와집  
산은 자하산(紫霞山)/ 붉은 녹으면  
느릅나무/ 속잎 피어가는 열두 굽이를  
청노루/ 맑은 눈에  
도는/ 구름

- 박목월, <청노루>

- ① 시상이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② 시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③ 시상이 화자의 심리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④ 시상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⑤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.

16.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어가 적절히 사용된 것은?

- ① 가상(假像)현실에서는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있다.
- ② 가시(可示)적인 성과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.
- ③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인생 편력(遍歷)이 드러나 있다.
- ④ 그 이야기는 과장(誇長) 없는 사실이다.
- ⑤ 삶에 대한 통찰(通察)이 묻어나는 말씀이다.

17. 다음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예들 중 일부이다. 아래 보기의 설명 가운데 이 예들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것은?

잇몸, 바닷가, 뒷일, 전셋집

- 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②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'ㄴ', 'ㄹ'앞에서 'ㄴ'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③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'ㄴㄴ'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④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'ㄴㄴ'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
18. 다음 중 띄어쓰기가 맞는 문장은? ('V'는 띄어쓰기 부호)

- ① 옷V한벌V살V돈이V없다.
- ② 큰V것은V큰V것V대로V따로V모아V뒤라.
- ③ 강아지가V집을V나간V지V사흘V만에V돌아왔다.
- ④ 이V나무는V10V미터가V넘는다.
- ⑤ 합격했다는V말에V뿔듯이V기뻐하였다.

19. 제시된 단어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궁도련님 :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 세상의 어려운 일을 잘 모르는 사람
- ② 윤뚝뚝이 : 사리에 어둡고, 아는 것이 없는 사람
- ③ 책상물림 : 책상 앞에 앉아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
- ④ 두루치기 :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함. 또는 그런 사람
- ⑤ 대갈마치 :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

20. 다음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묶은 것이다. 이들 가운데 표준어가 아닌 예가 들어 있는 것은?

- ① 눈대중 - 눈어림 - 눈짐작
- ② 보통내기 - 여간내기 - 예사내기
- ③ 멀찌감치 - 멀찌가니 - 멀찍이
- ④ 녕쿨 - 덩굴 - 덩쿨
- ⑤ 되우 - 된통 - 되게